



멤논의 거상 · 사진: Diego Delso / Wikimedia Commons, CC BY-SA 4.0

제 18 왕 조

멤논의 거상

한때 웅장했던 장제전에서 남은 전부

왜 중요한가

각각 약 18미터 높이의 아멘호테프 3세의 거대한 두 석상은, 최근 발굴을 통해 테베에서 지어진 가장 큰 장제전—원래 면적으로는 카르나크보다도 컸던 것으로 밝혀진—의 지상에 남아 눈에 보이는 전부이며, 이 장제전은 수 세기에 걸친 홍수와 지진으로 파괴되고 그 돌은 이후 신전 건축에 약탈되었습니다. 석상 뒤편에서 진행 중인 발굴 작업은 사자 머리를 한 여신 세크메트의 추가 거대 석상을 발견했으며, 더 많은 왕실 석상 조각들이 여전히 모래 아래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.

≈ 18 m

각 조각상의 높이

2

아멘호테프 3세 좌상

서기 130년

하트리아누스 황제가 들으러 옴

10분

이면 충분한 정차

방문 준비

운영 시간	야외 유적, 하루 종일 볼 수 있음
입장권	무료 — 입장권 불필요
사진	무료
소요 시간	10-15분
추천 시간	서안 유적으로 가는 길, 이른 아침 빛
위치	서안, 왕가의 계곡으로 가는 주도로 옆

요금과 운영 시간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. 매표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매표소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.



이 순서로 둘러보세요

볼거리

더 큰 이야기

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진으로 생긴 균열 때문에 석상 중 하나가 일출 시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, 전설적인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따 '멤논'이라 명명되었으며, 이 소리는 로마 시대의 보수 이후 멈췄습니다. 이 기이한 현상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비롯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었으며, 이들은 자신의 방문을 기록한 그리스어와 라틴어 비문 및 시를 석상 받침대에 새겼습니다.

1 두 거인

왕좌에 앉은 아멘호테프 3세, 다리 옆에는 어머니와 왕비 티예가 새겨져 있습니다.

3 고대 낙서

로마 방문객이 남긴 그리스어·라틴어 시가 아직 다리에 새겨져 있습니다.

2 '노래하는' 조각상

북쪽 거상은 지진으로 생긴 균열 때문에 해 뜰 무렵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— 로마 시대 보수 전까지.

4 사라진 신전

조각상 뒤편 발굴로 테베에서 가장 큰 신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알아두면 좋은 점

- 도로에서 몇 분 만에 바로 볼 수 있어 서안 투어의 시작이나 끝에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.
- 아주 가까운 라메세움, 메디넷 하부와 함께 둘러보세요.
- 차량 조심 — 조각상이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.



전체 이야기 듣기

스캔하면 Luxor Guide 오디오

투어 — 11개 언어, 오프라인 지원

현지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세요

원하는 언어의 전문 이집트학 가이드, 기사 포함 차량, 그리고 열기구·펠루카·나일 크루즈까지. 메시지 주시면 빠르게 답해 드립니다.

WhatsApp +20 100 050 6066

info@luxor-guide.com

출처: Luxor Guide 해설 원고 — 멤논의 거상; 이집트 관광유물부 입장료 정보 (2026);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—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(1979). **사진:** Diego Delso, delso.photo, CC BY-SA 4.0, via Wikimedia Commons.